



종로구 신문로1가 햄머링맨

공공디자인을 디자인하다 We designed "Public Design"

최 신 현 David, Choi · 영남대학교 교수

자연과 관습에 따라 생활하며 관계성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었던 농경사회 및 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문제보다는 산업화를 토대로 한 양적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가치창출에 주력했던 산업사회는 공공적 환경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는 역부족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21세기가 열리며 인간 삶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문화사회 추구와 '보다 더 인간을 위한' 질적성장의 도시로 진보해감으로써 개인적 생활의 장소와 병행하여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공공건축과 공공매체, 옥외광고물 등의 통일성·조화성·경관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12월에 한국공공디자인학회가 창립되었고, 2006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면서 지금은 전국의 도시마다 디자인본부 조직이 만들어져 도시의 공공디자인 부분의 사업을 기획·시행해 나가고 있다. '디자인이 살길이다'라는 말처럼 경쟁적으

로 지자체별 공공디자인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공공디자인이란 무엇인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정의」에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 정의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정의이지만 조금 미흡한 정의가 아닌가 싶다. 공공기관의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행위는 도시전체의 공간을 놓고 보면 소유적 관점에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공적 공간과 시설만을 공공디자인으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적공간과 시설이 도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폭넓은 공공디자인의 정의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소유자 구분에 따른 공공적 공간도 있지만 경관적, 즉 시각적 한계구분에 따른 공적영역의 범위도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한강과 남산, 문화예술회관, 난지공원 등의 공공적 공간에 대한 공공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상가시설, 주택 등의 개별 건축물과 공간도 우리의 시각적 관점에서의 공공성은 대단히 크다고 본다.

공공디자인은 왜 필요한가?

+ 21세기 사회와 공공디자인
세계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오랜시간 보존해왔던 전통과 관습들이 21세기 가치관들에 의해 충돌되고 이러한 모순과 갈등의 시대적 흐름에서 국제화된 도시와 그 사회는 자문화 중심에서 벗어나 공존과 교류, 이를 통한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가 소속된 사회공동체의 관계는 더 이상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수많은 사회와 문화' 속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공디자인의 역할

공공디자인의 역할이란 21세기 사회의 다양한 시대정신을 공공이란 그릇속에 담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공공디자인은 다원화된 도시거주자의 요구, 복합화된 도시환경과 시설물들을 통합하고 조정해주어야 한다.

+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품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문화적 성숙의 척도이며 경쟁력 제고의 필수조건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도시환경의 질과 삶이 제고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디자인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의 증대
도시공간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개인 및 집단의 이기적인 다양한 요구가 증대되는 반면에 이를 수용할 도시환경에 대한 통합적 기준과 제도가 부재한 상태이다.

+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회적이고 파편화된 과잉 디자인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현행법은 간판, 가로시설물, 가로구조물, 고가도로, 행정구역단위별 등의 단편적 실행을 하고 있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이며 건축·도시·교통평가시에 미관심의·경관심의는 부차적이고 용적률·사유권 등의 기능성 위주로 평가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통합과 조정, 소통과 조화의 부재

도시환경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고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개발이 되어야 하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공공디자인이 아닌, 부분적인 공간과 가로의 디자인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도시전체의 쾌적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일관성있는 기능과 미적 조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다양한 현상의 조화와 집목의 부재

도시만의 공공적 가치와 목적의 구현을 위하여 통시적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역사·문화·장소·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 정체성 및 지역특성 등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새로운 정책과제를 담아내는 제도와 기구의 미비
단편적인 정책수립으로 통합적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고 기타 디자인 분야 - 건축, 조경, 산업디자인 등 - 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공공디자인은 이제 결음마 단계를 벗어나 어린이 수준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디자인 본부가 조직되고있어 조만간 체계적인 도시공공디자인이 자리잡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공공이 주관하는 공공디자인이 너무 반문화적 권위주의 위주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되는것과 도시의 사회계층, 공간환경적 차별이나 문화와 디자인 해석의 오류는 지양되어야 한다.

+ 통일성에 따른 도시 다양성의 상실

지자체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시행하면서 도시의 정체성과 통일성에 치우쳐 시행하다보면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도시의 다양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간판이나 기타 공공디자인 과정에 통일성과 다양성의 적절한 융합이 필요할 것이다.

조경과 공공디자인

초기단계인 공공디자인 분야는 지금까지 디자인 주체가 뚜렷하지 않아서 거의 산업디자인이나 환경디자인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기타 건축이나 도시계획, 조경에서 미미하게나마 참여해왔다. 물론 그것이 경쟁사회에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공공디자인의 공간적 해석보다는 시설적 범위에서의 접근으로 인해 요소별 디자인으로서 도시전체의 디자인과는 별개로 구멍가게식 디자인 개개로 비춰질 수 있다. 한강 교량의 경우도 경관조명 바람이 불어 23개의 다리가 제각기 디자인을 뽐내는 백화점식 야간경관디자인이 되었는데, 한강 전체 교량의 디자인 관점에서 경관조명을 강조해야할 우선순위의 교량을 선정하고 주제에 맞게 강약과

색채, 조명기법을 연출했으면 컨셉이 있는 경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미시적 관점의 부분적인 디자인 개선이 아닌 도시 전체의 역사, 문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고, 도시별 정체성 및 디자인 주제를 찾아내며 주제에 부합되는 도시공공디자인 골격을 형성해 그 디자인 뼈대에 맞는 갈비뼈를 붙여나기듯 디자인의 통합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공공디자인의 한 요소인 간판정비를 보더라도 통일감있게 간판의 사이즈를 줄이고 글씨체를 맞추고 색채를 조화롭게 하는 방식에서 간판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기할뿐만 아니라 간판이 부착되는 가로의 특성을 부여하고 가로의 시설물과 건축물의 외관까지도 간판과 조화되도록 부분이 아닌 전체를 계획하고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공공디자인 분야는 건축가나 도시계획가,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이 아닌 역사·문화를 토대로 공간을 더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조경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디자인해야 한다고 본다. 도시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여 획일화되지 않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공디자인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역할에 합당하도록 조경가들은 공공디자인을 주도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심미적·기능적 감각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끝내며

도시의 디자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침서 용역이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밀한 기준적 지침 마련도 중요하지만 도시특성화에 부합되는 디자인 개념을 확립하고 독창적 디자인을 맘껏 시도하는 조경적·경관적 공공디자인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경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전략적·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개발과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 향상과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경주해야 할 것이다.

ctopos@hanmail.net



참여형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사례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살기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모토로 도시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실행하며 차별화된 도시로 단장하는데에 분주하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많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거리, 공원을 비롯해 도시 공간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공디자인으로의 시각 및 영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며,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정부 및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더욱 다양한 공간디자인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서서울호수공원

과거 신원정수장이었던 20여만평의 부지가 물과 재생을 주제로 한 '서서울호수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되었다. 서서울호수공원은 전체 부지의 컨셉을 '재생'에 맞추어 기존 정수장의 시설들을 재활용하고 공원 전체의 시설물들과 그 연관소재로 통일한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일본 록본기힐스



대학교와 돌음별마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환경조각, 전시장이 아닌 현대 도시공간의 미술작품들은 환경조형미술의 한 장르로서 공공공간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공간에 있다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과 작품이 존재하는 장소, 관람자인 시민들이 함께 할 때, 본연의 공공성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경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4년 시행된 대학교 가로경관개선사업은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대상인 보행로에 환경조각을 도입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한 사례이며, 전북 고창 안현 돌음별 마을은 미당 서정주의 생가와 기념관이 인접한 마을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된 곳이다.



대학교 가로경관개선사업



고창 안현 돌음별마을 공공미술프로젝트

기타 프로젝트



견고싶은 다리 프로젝트 - 광진교



화성동탄신도시 가로



영월군 영흥리 요리박물관



도시갤러리프로젝트 - 윌트리파크



학교갤러리프로젝트 - 인수초등학교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혁신

권영길 Kwon, Yong Gull ·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공간디자인 · 국회공공디자인포럼 공동대표,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우리는 다양한 인공물을 통해 편의를 추구하고,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며, 타인과 관계한다. 디자인은 이러한 삶의 환경을 구성하는 인공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사고하고 결정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디자인이 대상으로 하는 인공물 영역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물들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공간들,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무수한 이미지들, 그리고 일상의 움직임들을 조직하는 무형의 사고와 제도까지 포함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인공물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관계와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물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디자인은 곧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디자인은 산업이라는 맥락에서 상업적 가치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편협한 이해방식은 우리 삶에서 디자인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만 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정치적 역할들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장경제논리 속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사적인 소비영역에 집중됐고, 공공의 행복이나 안녕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인 문화영역으로부터는 멀어져 갔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전근대적인 풍경과 첨단이 어지럽게 공존하는 불균형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와 휴대폰을 생산하면서, 한편 무질서한 시각매체들과 난잡한 거리, 그리고 조악한 공공구조물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각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디자인의 정의에는 공공성이 전제되어 있다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자 공공적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디자인이 공공성에 기초하여 성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디자인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과

고른 문화 향수의 기회를 추구한다. 물질의 시대에서 문화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낙후된 온갖 '삶의 조건' 들의 격(格)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공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이게 하는 것은 그것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공공디자인은 무엇보다 하나의 태도이며 입장인 바, 그것은 늘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세상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디자인은 공적 영역의 문화적 가치와 공공성 회복, 문화를 축으로 한 디자인 가능성의 모색 그리고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디자인적 조정 및 조율을 목표로 한다.

공공디자인은 디자인 주체와 객체, 지향하는 가치, 역할 등에 있어 기성의 상업적 디자인과 구별된다.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객체는 특정한 소비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대중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대중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더 중시하며,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추기보다는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디자인의 초점을 맞춘다. 공공디자인은 경제적인 이윤을 지향하기보다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 차원을 넘어 모두의 삶의 질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디자인이다.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모든 인공물이 공공디자인의 대상이지만, 그 내용을 대별하면 사물, 공간, 이미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가 된다. 첫째, 「사물」의 영역에 포함되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는, 휴게시설, 위생시설, 조명시설, 정보시설, 교통시설, 수경(水景)시설, 관리시설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집기와 도구, 나아가 경찰차량, 경찰복, 청소차량, 환경미화원의 제복, 청소용구까지도 이 영역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둘째, 「공간」의 영역에 속하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각종의 가로와 도로, 거리와 골목, 공원과 광장, 경찰서와 같은 공공기관, 유아원과 같은 보육시설,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놀이터, 근린상가와 시장, 나아가 리조트, 공항 등으로 그 전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요소의 디자인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이미지」의 영역에 속하는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는, 가로의 표지판, 간판, 자동차번호판, 나아가 공공기관의 각종 표지, 문서 서식 및 증명서, 여권 등과 같은 시각 전달매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이미지 영역은 빛, 색과 같은 매질(媒質)을 수단으로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생태학적 건강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시각적 조정 작업을 포함한다.

이렇듯 공공디자인은 대중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며, 특히 국가와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공공디자인 정신으로 만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이 공적 영역의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공공디자인 담당 소관기관이 제각각인데다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그 결정 과정에서 이용자 국민과의 소통 부재로 행정편의적 디자인만이 난무하여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공공간을 개발할 때에나, 공공시각매체를 제정해 사용할 때에, 도시 환경적 특성과 지역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대중의 삶의 질을 높여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공디자인이 사회적 창의력의 원천이며 국가브랜드의 출발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정신과 개념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삶 속에 침윤되고 뿌리 내릴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간중심의 터전이 실현될 것이다. kwonyg@snu.ac.kr

Issues & news

200911 Landscape Review

조경문화·녹색문화 라েন্ট www.lafent.com

서울시, 디자인 정책 쏟아내

서울시시장 오세훈은 지난 10월 1일 제2단계 디자인 서울 구상을 담은 새 비전을 선포했다. "그동안 디자인서울이 도시 공공디자인 체계를 정립과 인프라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디자인서울을 시민생활 및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 사업 위주로 재편, 정책 수혜를 시민에게 더 직접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도시브랜딩 사업 본격 추진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대구를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총 66건(전략과제 19, 선도와제 19, 육성과제 27)의 도시브랜딩과제를 발굴하고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명품도시 대구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대구시 도시브랜딩 기본계획에 포함된 역점 추진분야는 첨단의료 등 지식서비스산업, 문화·관광, 저탄소 녹색성장환경, 국제대회, 도시디자인, 기타 등 6대 분야로서 그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각각의 도시브랜딩 과제를 발굴하였다.

인천경제청, 디자인도시 조성 국제세미나 개최

인천경제청(청장 이현석)은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인천 송도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에서 아름다운 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관계획의 세계적 흐름, 영국·프랑스의 공공디자인 및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더불어 IFZ 도시경관의 법·제도화 방안, 아름다운 디자인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외 우수사례 소개를 통한 경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름다운 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 전략 모색을 위한 기회가 되었으며, 매력적인 정주여건 마련 및 세계적인 명품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교육 실시

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지난 9월 23일 7급이하 공무원에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마인드 창출 및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 2일 6급 이상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행사였다.

포천시,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시상식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주최한 '2009 제4회 대한민국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가 지난 10월 28일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입선 이상의 우수한 작품들을 포천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발침"이라 전했다.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선정

인간과 자연을 배려하는 행복한 강원도'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회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함수현(교역스카이라이프) 씨의 "조약돌"이

영예의 대상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시설물(4개 부문)과 자유제안으로 2개 유형 5개 부문에서 총 127점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작품이 접수되어 대상 외에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5작품, 장려상 15작품 등 총 22점이 선정되었다.

성동구만의 디자인거리 조성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지난 10월 20일 왕십리길 디자인 서울거리 및 고산지로 서울 르네상스 거리조성사업 준공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각 동별 상징적이고 특색 있는 디자인거리로 시범조성하는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3호 조경정보 8면에 수록된 'La Vilette, France'를 Curitiba, Brasil, 'Potsdamer Platz, Germany'를 Schoiuv-burglein, Nederland,로 바로잡습니다.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0년 1월 1일 발행될 조경정보 제 5호의 주제는 '가로'입니다. 관련 정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라ენტ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2009년 12월 5일까지 보내실 곳 lafent@lafent.com 문의 031-955-6042~4 www.lafent.com

2009 공공디자인 엑스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회 주최로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9 공공디자인엑스포가 개최되었다.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라는 주제로 한중일 기업간 비즈니스기회를 창출하는 'Public Design Square',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소개하는 '문화체육관광부관' 등을 테마로 한 주제관을 비롯, 중앙부서의 정책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을 담고 있는 공공관, 관련업계의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 등을 소개하는 기업관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한편, 전시기간 중 개최된 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시상식에서는 목표시의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숲길- ECO MOKPO 가 종합 대상을, 전남도의 '느림의 미학 슬로시티'가 공공정책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공디자인엑스포조직위원회가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공공디자인'으로 실천하는 녹색성장'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총 112점이 출품되었고, 작품성·공공성·조화성·주제해설 등을 심사했으며,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숲길 ECO MOKPO 는 주거 밀집지역에 인간과 도시, 자연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삶'을 컨셉으로 사람의 광장, 숲의 거리, 미사토길, 바닷분수 등 공간마다 독특한 경관 디자인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9 대한민국 조경주간

지난 10월 18일(일)부터 24일(금)까지 2009 대한민국 조경주간' 행사가 개최되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경인들을 격려하고, '조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아래 열리게 된 것. 올해 조경주간에는 조경인 골프대회, 조경의 날 기념식, '동네조경가 사진 공모전' 시상, 자랑스런 조경인 시상식,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사)환경조경발전재단비전위원회 활동보고와 '도시재생과 조경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녹색성장과 조경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한국조경학회 제2차 학술발표가 진행되었다. 조경주간의 마지막 날인 23일과 24일에는 한국조경학회의 임시총회와 학술대회 그리고 추계학술대사가 각각 부산과 경남 밀양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금년도 행사에서는 숨어있는 동네조경가 발굴부터 조경의 비전에 대한 발표에 이르기까지 한국조경의 오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또한 '도시재생과 조경의 역할', '녹색성장과 조경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HOT Issues & News

이달의 인기 검색 키워드

- ▶▶ 서울시, 디자인기업 육성기회
- ▶▶ 마곡지구 첫 삽, 워터프론트는 하반기 착공
- ▶▶ 광주 시민중심 '녹색성장포럼' 발족
- ▶▶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허용
- ▶▶ 2010년 학교숲 조성대상지 59곳 선정
- ▶▶ 구로구, 서울 푸른수목원 착공
- ▶▶ 부산그린리스트 발대식
- ▶▶ (사)한국경관학회 제1회 학술발표대회
- ▶▶ 행복도시 올해안, 8천억 발주
- ▶▶ 제46회 F.A 세계대회 브라질서 개최
- ▶▶ 4대강 유역, 16개 보청 공개
- ▶▶ 산림청, 잔디 유통센터' 설립 추진
- ▶▶ 서대문, 2013년까지 복원

조경전문 포털사이트 www.lafent.com에 접속하시면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 및 행사, 관련정보를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 조세환
편집위원장 | 이삼석
편집위원 | 최신현
김도경 김태영 이우직 조경진 진양호
간사 | 임수정 백정희
2009년 11월 15일 발행 | 발행처 | (사)한국조경학회



Almere New Town, Amsterdam, Nederland



Fountain Garden, Sentosa, Singapore



Clarke Quay, Singapore



Dotombori, Osaka, Japan



Palmen Garten, Frankfurt, Germany



Siodome, Tokyo, Japan



Arnulf Park, Munich, Germany



Berlin, Germany



Lisbon, Portugal



Gery Museum, San Francisco, USA



798 Artzone, Beijing, China



(주)조경설계 비욘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58-2

보정빌딩 8층(우138-828)

Tel. 02-2202-0596

Fax. 02-2202-0597

E-mail. beyondl@chol.com

Homepage. www.beyondla.kr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